

지난 해 수도권 매립지의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문제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아 같이 먹고 남은 음식은,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먹기도 비위생적이고 또한 냉장고에 넣어 둔다 해도 그 신선도는 계속 떨어져 결국 금방 먹지 않으면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고유의 국, 찌개, 갖가지 반찬들을 기본으로 하는 상차림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는 줄지 않고 있다. 음식 쓰레기 발생량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일 발생량은 0.36kg, 독일 0.27kg, 영국 0.26kg으로 유럽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양이 배출되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발생량

지고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우리의 식생활을 무조건 서구식으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식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우선 그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아무리 음식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식생활문화라 할지라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상당부분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물 음식이 태반인 식사 구성이며 다듬고 잘라내는 일이 많은 조리과정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정 기간의 식단 계획에 따라 식품을 구매해 음식물 낭비를 막아보려는 주부들조차 많지 않은 형편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품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사 두었다가 상해서 버린 경험'이 있다'는 주부가 80% 가까이



환경오염을 가증시키는 음식쓰레기, 이대로는 안된다

임 지 연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부

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경제적 낭비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기도 하다.

음식물 쓰레기는 썩으면서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고 각종 해충 등 위생 상의 문제 등의 원인이 된다. 또한 발열량이 낮고 수분 함량이 많아 소각처리에 부적합하여 대부분 매립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매립지에서의 침출수문제, 매립지 안정화 저해 등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질 및 토양을 오염시키는 침출수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음식쓰레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관심을 가

되기도 했다.

음식 쓰레기 배출을 살펴보면 구입하고 유통기한이 지나 개봉도 안한 채 버려지는 각종 음식물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신선도 유지 측면에서 먹을 만큼의 양을 구입하고 그때그때 조리하면 음식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물론 바쁜 현대사회에서 그때 그때 음식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1주일 단위의 식단을 계획하여 그 유통기간에 맞추어 음식을 구입해 놓으면, 요리하기도 전에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양은 많이 줄어 들 것이다.

한편 신문에 음식 쓰레기를 싸는 이유는 신문지가 물기를 조금 더 흡수해 주기 때문이다.



음식 쓰레기는 유기물이어서 썩으면서 다시 물이 생기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분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1차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 통해서 물기를 제거해서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싱크대 옆에 체를 두고 거르는 방법, 현 스타킹을 배수구에 씌워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거르는 방법, 모아진 것을 신문지에 싸서 버리는 방법 등 생활의 지혜를 짜 내어 봐도 좋을 것이다.

가정 뿐만 아니라 음식 쓰레기 발생의 주범인 식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반찬의 가짓수와 양을 줄이며, 손님이 원하는 경우 원래 반찬의 1/2을 더 제공한다. 남은 음식을 싸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급식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음식물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의 음식기호도를 조사해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식단을 구성·활용한다. 학생의 체형에 따라 그릇의 크기를 달리 하는 방법도 좋은 감량화 방법이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1일 발생하는 농산물 쓰레기는 380톤으로, 1개 자치구의 생활 쓰레기 배출량에 버금간다. 여기서 나오는

야채류의 쓰레기는 퇴비화 및 사료화 하기에 용이하므로 근처의 농가와 연결하여 퇴비화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8조원. 이것은 경부고속전철 1대를 건설하고도 남는 비용이고, 10원짜리 동전을 반듯하게 포개 놓으면 지구를 약 3바퀴 도는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다.

이렇게 경제적 낭비를 가져오는 음식 쓰레기는 종량제 실시 이후 오히려 우리 생활 폐기물 발생 중에서 3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주민들의 실천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의 기본 방향을 '감량화, 자원화'에 두고,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대형 설비를 갖춘 퇴비장 및 사료장을 통해 음식 쓰레기를 모아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업체나 지자체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원마다 실천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정부의 감량화 자원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 나간다면, 지금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72